
2005년 세계 FTA 추진 동향 및 2006년 전망

2006. 1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목 차>

<요약>		I~XII
I. 2005년 추진 경과		1
1. 아시아		1
가. 일본		1
나. 중국		4
다. ASEAN		7
라. 싱가포르		10
마. 태국		12
바. 인도		15
사. 말레이시아		18
아. 대만		19
2. 미주지역		21
가. 미국		21
나. 캐나다		24
다. FTAA		25
라. 멕시코		26
마. 칠레		28
3. 유럽지역		30
가. EU		30
나. EFTA		32
4. 대양주지역		35
가. 호주		35
나. 뉴질랜드		37
II. 2006년도 FTA 추진 일정		39
1. 2006년 발효, 협상 개시 및 타결 예정 FTA		39
2. 2006년도 주요 국가별 FTA 추진 일정		41
가. 한국		41
나. 미국		42
다. 일본		43
라. 중국		44
마. 싱가포르		44
바. 태국		45
사. 인도		46
아. 말레이시아		47
자. 멕시코		47
차. 칠레		48
카. EFTA		48
타. 호주		49
파. 뉴질랜드		49
3.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 변화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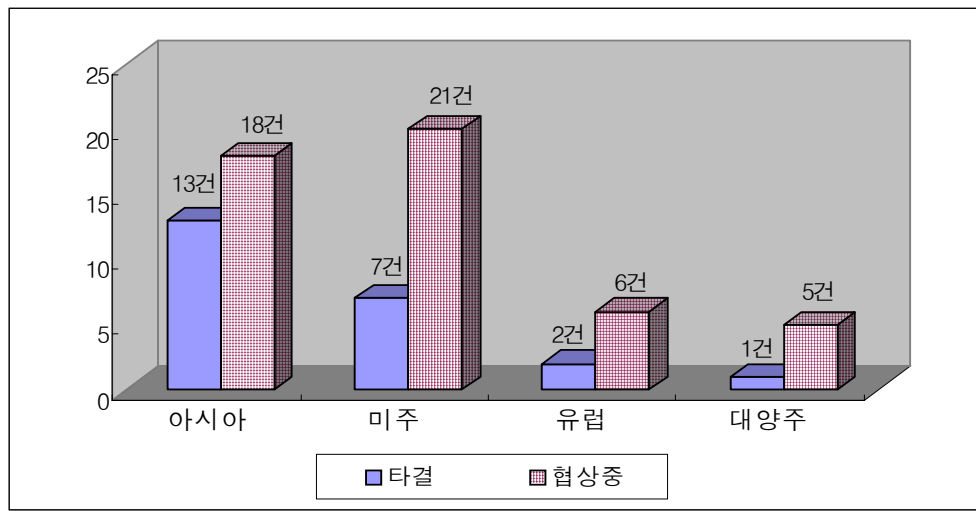
< 요약 >

I. 2005년 추진 경과

□ 2005년 세계 전지역에서 FTA 체결을 위한 활동이 활발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함

- 지난 해 세계 주요국가의 FTA 추진동향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 총 13건의 FTA가 타결되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미주지역이 7건, 유럽 지역이 2건 등의 타결 실적을 기록함. 또한 지난해 진행된 협상 건수는 미주지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지역이 18건, 유럽 6건, 대양주 5건으로 파악됨

2005년 타결된(협상중) FTA 대륙별 현황



* <표1>참조, 입수 가능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

- 대륙별로는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및 미주 지역 뿐 아니라 대양주 지역 등 여러 대륙과 FTA를 활발히 추진함. 미주 국가들은 아시아 및 같은 미주 대륙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
- 한편 유럽지역은 중동 지역과의 FTA 체결에 박차를 가했으며 대양주 지역은 아시아 지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대륙별 FTA 추진동향 (타결/협상중)

	아시아	중 동	미 주	유 럽	대양주	아프리카	2개 이상*	소 계
아시아	5/5	1/2	5/6	1/0	0/5	0/0	1/0	13/18
미 주	5/6	1/1	0/11	0/2	0/0	0/1	1/0	7/21
유 럽	1/0	0/3	0/2	0/0	0/0	1/1	0/0	2/6
대양주	0/4	0/0	0/0	0/0	0/0	0/0	1/1	1/5

* 2개 이상의 대륙을 포함함

□ 주요 대륙별로 보면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모든 주요 국들이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아시아 지역에서 총 13건의 FTA가 타결되었음

○ 타결국을 살펴볼 때 태국, 파키스탄, 일본, 말레이시아 등 같은 아시아 대륙 내에서의 FTA 추진뿐 아니라 칠레, 페루, MERCOSUR 등의 남미지역과 EFTA 등의 유럽 지역과의 FTA 추진도 활발했음

아시아 주요국의 FTA 타결 현황

	2004년말		2005년중			2005년말 누계	
	타결건수	국가수	타결건수	국가수	타결국	타결건수	국가수
한국	2	2	1	4	EFTA	3	6
일본	3	3	2	2	태국, 말레이시아	5	5
중국	3	12	2	2	파키스탄, 칠레	5	14
태국	5	18	2	2	일본, 페루	7	20
인도	7	21	3	6	칠레, 싱가포르, MERCOSUR	10	27
싱가폴	9	19	3	5	파나마, 카타르, Trans-Pacific SEP	12	24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Trans-Pacific SEP: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간 FTA

□ 미주지역에서 2005년 7건의 FTA가 타결되어 아시아 지역의 13건과 비교해 FTA 추진이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됨

○ 미국은 오만과의 FTA 타결 1건을 기록했으며 멕시코는 FTA 추진 보류라는 정책으로 한건도 타결시키지 못한 반면 칠레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과의 FTA 추진에 적극적이었음

미주 주요국의 FTA 타결 현황

	2004년말		2005년중			2005년말 누계	
	타결건수	국가수	타결건수	국가수	타결국	타결건수	국가수
미국	9	14	1	1	오만	10	15
멕시코	10	43	0	0	-	10	43
칠레	11	41	3	5	중국, 인도, Trans-Pacific SEP	14	46

* Trans-Pacific SEP: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간 FTA

- EU는 다자주의 우선원칙을 내세워 FTA 추진을 자제하고 WTO 체제 하에서 다자교역의 내실과 발전을 다져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2005년 중 타결된 FTA는 한 건도 없었으나 EFTA의 경우 한국, SACU 등 2건의 FTA가 타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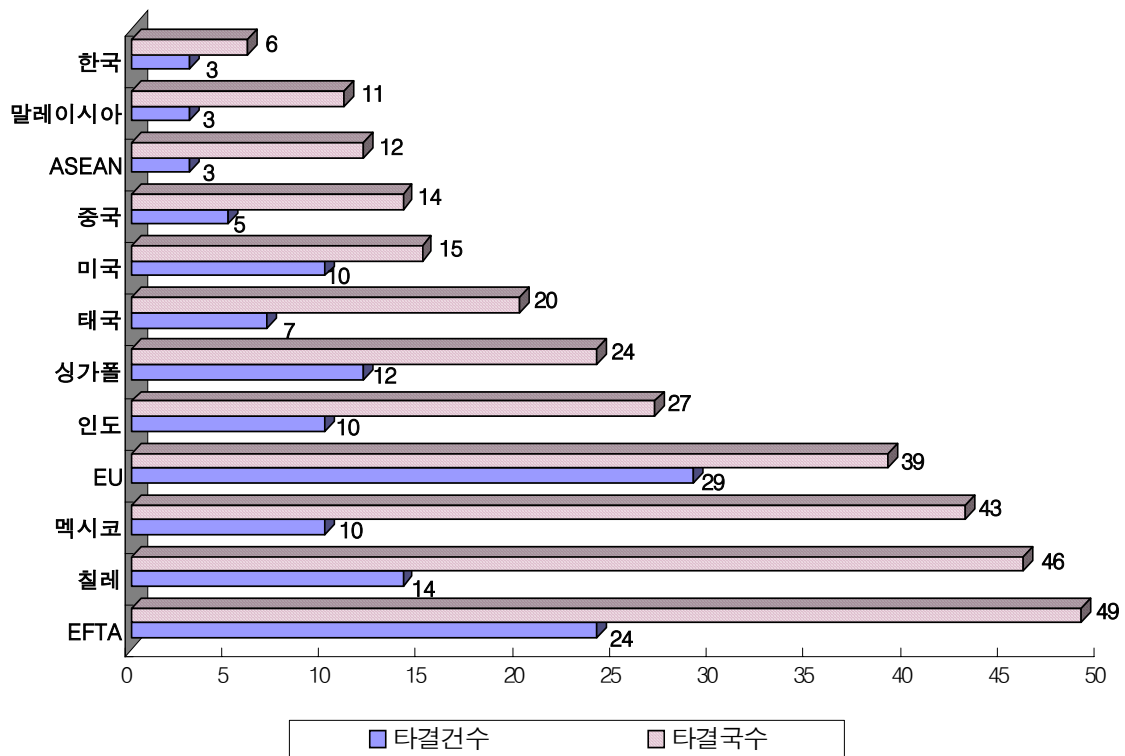
유럽의 FTA 타결 현황

	2004년말		2005년중			2005년말 누계	
	타결건수	국가수	타결건수	국가수	타결국	타결건수	국가수
EU	29	39	0	0	-	29	39
EFTA	22	43	2	6	한국, SACU	24	49

*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보츠와나, 남아공,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

- 2005년말 현재 국가별 타결국수를 보면 EFTA가 49개국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칠레가 46개국, 멕시코가 43개국의 순으로 나타남. 이어 EU가 39개국, 인도 27개국, 싱가포르 24개국, 태국 20개국, 미국 15개국, 중국 14개국으로 기록됨
- 타결건수로는 EU가 29건을 기록해 가장 많이 FTA를 체결했으며 다음으로 EFTA가 24건, 칠레가 14건, 싱가포르 12건, 미국과 인도가 10건을 기록함

<2005년말 현재 주요국의 FTA 타결 현황>



* EU(25), EFTA(4), ASEAN(10)등은 회원국수대로 계산

<표1> 2005년 대륙별 FTA 추진 동향

	건수	2005년 타결	협상 중
아 시 아	타결; 13건, 협상중; 18건	인도-Mercosur(3월) 인도-싱가폴(3월) 싱가폴-파나마(4월) 일-말레이시아(5월) 싱가폴-카타르(6월) Trans-Pacific SEP(6월) 한-EFTA(7월) 대만-과테말라(7월) 일-태국(8월) 중국-칠레(11월) 인도-칠레(11월) 중국-파키스탄(12월) 말레이시아-파키스탄(12월)	한국-캐나다, 한국-ASEAN, 한국-일본, 일본-ASEAN, 일본-인도네시아, 중국-뉴질랜드, 중국-GCC, 중국-호주, ASEAN+호주+뉴질랜드, 태국-미국, 태국-바레인, 싱가포르-멕시코, 싱가폴-캐나다, 싱가포르-쿠웨이트, 싱가포르-파나마, 말레이시아-호주, 말레이시아-뉴질랜드, 대만-니카라과
미 주	타결; 7건 협상중; 21건	Mercosur-인도(3월) 파나마-싱가폴(4월) Trans-Pacific SEP(6월) 과테말라-대만(7월) 미국-오만(10월) 칠레-중국(11월) 칠레-인도(11월)	FTAA, 미국-SACU, 미국-태국, 미국-파나마, 미국-페루·콜롬비아·에콰도르, 미국-UAE, 캐나다-EFTA, 캐나다-중남미4국, 캐나다-한국, 캐나다-Mercosur, 멕시코-싱가폴, 캐나다-싱가폴, 멕시코-Mercosur, 멕시코-아르헨티나, 칠레-페루 칠레-볼리비아, 칠레-중남미5국, 칠레-파나마, 파나마-싱가폴, 니카라과-대만, Mercosur-EU
유 럽	타결; 2건 협상중; 6건	EFTA-SACU(6월) EFTA-한국(7월)	EU-Mercosur, EU-GCC, EFTA-이집트, EFTA-레바논, EFTA-캐나다, EFTA-남아공
대 양 주	타결; 1건 협상중; 5건	Trans-Pacific SEP(6월)	호주-중국, 호주-말레이시아, 호주-뉴질랜드-ASEAN, 뉴질랜드-중국, 뉴질랜드-말레이시아

Trans-Pacific SEP: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간 FTA

CAN (Andean Community 안데안국가연합)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GCC (걸프협력이사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SACU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보츠와나, 남아공,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

*현재 파악 가능한 것만을 대상으로 분석

<표2> 2005년 국별 FTA 추진 동향

	‘04년말	‘05년중					‘05년말 타결누계	
	타결국	타결			협상 중	검토 중	건수	국수
		건수	국수	타결국				
한국	칠레, 싱가포르	1	4	EFTA	일본,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Mercosur, 미국	3	6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2	2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ASEAN, 인도네시아	칠레, 스위스, 캐나다, 대만	5	5
중국	홍콩, 마카오, ASEAN	2	2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호주, GCC	인도, 한국, 일본, Mercosur	5	14
ASEAN	AFTA, 인도, 중국	0	0	-	한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미국, 대만, EU	3	12
태국	AFTA, 인도, 호주, BIMSTEC, 뉴질랜드	2	2	일본, 페루	바레인, 미국	중국, 파키스탄, EFTA	7	20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ASEAN, SAFTA, BIMSTEC	3	6	칠레, 싱가포르, Mercosur		남아공, 이집트, 우루과이	10	27
싱가포르	AFTA, 뉴질랜드, EFTA, 일본, 호주, 미국, 요르단, 한국	3	5	파나마, 카타르, Trans-Pacific	멕시코, 캐나다, 쿠웨이트, 파키스탄	중국-ASEAN, EU, 중국	12	24
말련	AFTA	2	2	일본,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3	11
미국	NAFTA, 칠레, 싱가포르, 중남미4국+도미니크, 호주, 바레인, 모로코 등	1	1	오만	FTAA, 태국, 파나마, SACU, 페루·콜롬비아·에콰도르	ASEAN, 이집트, 대만, 인도네시아	10	15
캐나다	NAFTA, 칠레,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0	0	-	한국, FTAA, EFTA, 싱가포르, Mercosur	일본, CAN	4	5
멕시코	칠레, NAFTA, EU(25국), EFTA, 이스라엘, 우루과이, 일본 등	0	0	-	FTAA, 싱가포르, Mercosur, 아르헨티나	한국, 페루, 뉴질랜드	10	43
칠레	캐나다, 멕시코, EU(25국), 미국, MERCOSUR, 한국	3	5	중국, 인도, Trans-Pacific	FTAA, 볼리비아, 파나마, 페루 등	일본	14	46
EU	EFTA,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터키, 칠레 등	0	0	-	MERCOSUR, GCC	ASEAN, 싱가포르, CAN	29	39
EFTA	EU(25국), 터키, 체코, 헝가리, 발트3국,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튀니지 등	2	6	한국, SACU	이집트, 레바논, 카나다, 남아공	GCC, ASEAN, Mercosur, 알제리	24	49
호주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태국, 싱가포르, 미국	0	0	-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ASEAN	일본, 멕시코	5	5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태국	1	3	Trans-Pacific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ASEAN	미국, 멕시코	4	6

II. 2006년 FTA 추진 전망

- 2006년에 22건의 FTA가 발효되고 5건 이상의 FTA가 타결되며 4건 이상의 협상이 개시될 예정으로 전년에 이어 활발한 FTA 추진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도에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FTA는 22건으로 그 중 SAFTA(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 Trans-Pacific SEP, 중국-파키스탄 EHP(선자유화), 말레이시아-파키스탄 EHP가 1월 1일부터 발효
 - 3월초에 한국-싱가폴 FTA가 발효되며 7월에 한국-EFTA, 한국-ASEAN, BIMSTEC 등 3건의 협정이 발효 예정임. 또한 9월에는 일본-태국 FTA가 발효될 전망임
 - 싱가포르-파나마 FTA와 일본-태국 FTA의 공식 서명이 각각 1월과 4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후속절차가 조속히 끝날 경우 연내 발효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2006년중 타결을 목표로 하는 FTA 협상 건수는 적어도 5건이며, 이전부터 협상이 진행중인 FTA가 추가적으로 타결될 경우 그 건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캐나다, 미국-아랍에미리트, 중국-GCC, 중국-호주 FTA의 협상 타결이 예상되며 연초에 개시되는 한국-멕시코 SECA(전략적 경제보완협정)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함
- 2006년에 새롭게 개시되는 협상은 한국-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일본-칠레 FTA 등임
 - 이 외에 현재 FTA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정부간 검토단계에 있는 한-MERCOSUR FTA, 일본-캐나다 FTA 등의 공동연구가 종료되면 협상 개시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음

<2006년 전세계 FTA 추진 예상>

발효	협상 타결	협상 개시
22 건 이상	5 건 이상	4 건 이상
▪ 중국-파키스탄 EHP(1월) ▪ SAFTA(1월) ▪ 말레이시아-파키스탄 EHP(1월) ▪ Trans-Pacific SEP(1월) ▪ 한국-싱가폴(3월) ▪ 한국-ASEAN(7월) ▪ 한국-EFTA(7월) ▪ BIMSTEC(7월) ▪ 일본-태국(9월) ▪ CAFTA-DR(연내) ▪ 미국-바레인(연내) ▪ 미국-오만(연내) ▪ 일본-말레이시아(연내) ▪ 일본-필리핀(연내) ▪ 중국-칠레(연내) ▪ 싱가포르-인도(연내) ▪ 싱가포르-카타르(연내) ▪ 태국-페루(2006년 중반) ▪ 인도-MERCOSUR(연내) ▪ 인도-칠레(연내) ▪ EFTA-튀니지(연내) ▪ EFTA-SACU(연내)	▪ 한국-멕시코 ▪ 한국-캐나다 ▪ 미국-아랍에미리트 ▪ 중국-GCC ▪ 중국-호주	▪ 한국-인도 ▪ 일본-칠레 ▪ 일본-캐나다 ▪ 한국-MERCOSUR

□ 주요국별 2006년 FTA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 활동이 예상됨

○ 일본은 2006년 발효 예정인 FTA만도 3건,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협상 개시가 예상되는 FTA가 2건, 공동연구의 개시가 예정되는 있는 국가가 2군데일 정도로 FTA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의 FTA가 발효되며, 캐나다, 칠레와는 협상 개시가, 베트남, 호주와는 공동연구 개시가 기대됨

<일본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 일-말레이시아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중 발효 예정
▪ 일-필리핀	2006년 초 서명, 연내 발효 예정
▪ 일-태국	2006년 4월 서명, 9월 발효 예정
▪ 일-베트남	2006년 1월 공동연구 개시 예정
▪ 일-인도네시아	2005년 7월 협상 개시 후 2006년 진행 예정
▪ 일-호주	2006년 중 공동연구 개시 예정
▪ 일-캐나다	2006년내 공동연구 종료 예정(2005년 12월 개시)

▪ 일-칠레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2006년중 협상 개시 예정
▪ 일-스위스	공동연구 진행 예정
▪ 일-인도	2006년 6월 공동연구 결과 제출 예정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중 2건(멕시코, 인도)의 FTA 협상을 개시하고 ASEAN, 캐나다 등과의 FT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3월초 싱가포르, 7월에는 EFTA, ASEAN과의 FTA 발효가 예정되어 있음

<한국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 한-싱가폴	3월초 발효 예상
▪ 한-ASEAN	4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7월 상품무역협정 발효, 연내 타결 목표
▪ 한-EFTA	7월 협정 발효 예상
▪ 한-캐나다	2월 4차 협상, 연내 타결 목표
▪ 한-멕시코	연초 SECA 협상 개시, 연내 타결 목표
▪ 한-인도	2월 CEPA 협상 개시 예정
▪ 한-MERCOSUR	5월 공동연구 종료 예정
▪ 한-중국	연말까지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진행 예정

○ 싱가포르의 경우 4건(한국, 인도, Trans-Pacific SEP, 카타르)의 협정 발효가 기대되며 지난해 협상을 개시한 쿠웨이트, 파키스탄과는 2006년에도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

<싱가포르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 상-한국	3월초 발효 예정
▪ 상-쿠웨이트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6년 지속 예정
▪ 상-파키스탄	2005년 8월 협상 개시, 2006년 지속 예정
▪ 상-인도	2005년 6월 서명, 2006년중 발효 예정
▪ Trans-Pacific SEP	2005년 6월 타결, 2006년 1월 발효 예정
▪ 상-파나마	2005년 4월 타결, 2006년 1월말 공식 서명 예정
▪ 상-카타르	2005년 6월 타결, 2006년중 발효 목표

- 중국은 2006년 1월부터 파키스탄과 EHP가 발효되었으며 연내 칠레와의 FTA 발효가 기대됨. 그리고 GCC, 호주 등과의 협상 타결이 예상됨

<중국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 중-파키스탄	1월부터 선자유화(EHP) 실시
▪ 중-뉴질랜드	2004년 12월 협상 개시 후 2006년 협상 지속될 예정
▪ 중-칠레	2006년 중 발효 예정
▪ 중-GCC	2006년말까지 협상 타결 목표
▪ 중-호주	2005년 5월 협상 개시 후 2006년 타결 목표

- 인도의 경우는 SAFTA, ASEAN, BIMSTEC, 싱가포르, MERCOSUR, 칠레 등 2006년중 6건의 협정 발효가 기대됨

<인도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 SAFTA	2006년 1월 발효 예정
▪ 인도-ASEAN	2006년부터 발효 예정
▪ BIMSTEC	7월 발효 예정(2012년 6월까지 무역자유화 완성 목표)
▪ 인도-싱가폴	2006년 중 발효 예상
▪ 인도-MERCOSUR	2006년 중 발효 예상
▪ 인도-칠레	2006년 중 발효 예상

- 미국은 지난해 서명 및 비준 절차를 모두 마친 CAFTA-DR 및 바레인과의 FTA 발효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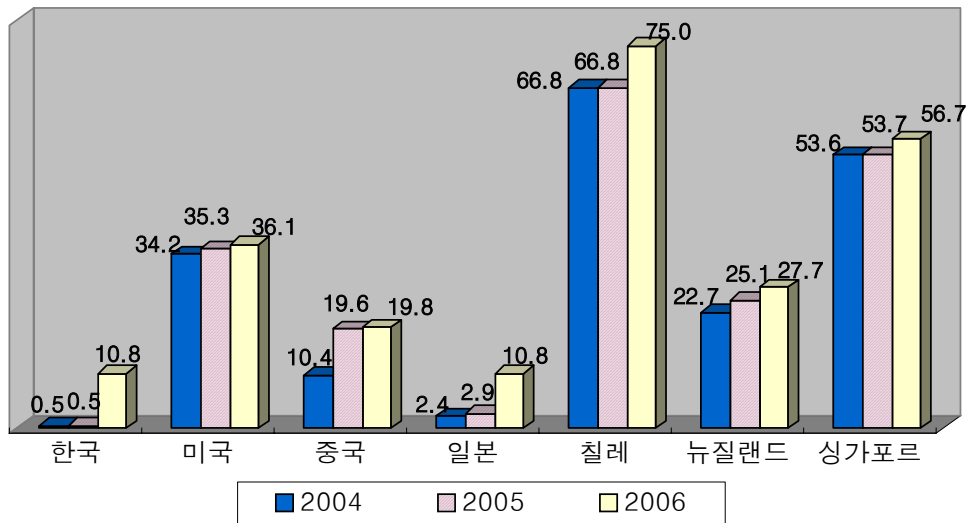
<미국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 중미 5개국 및 도미니카	2006년 초 발효 예상
▪ 미-바레인	2006년중 발효 예상
▪ 미-오만	2006년중 공식 서명, 발효 예상
▪ FTAA	협상국간 이해관계 충돌로 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CAN	CAN 전체가 아닌 개별국별 협상 진행 예정
▪ 미-아랍에미리트	2006년내 협상 타결 목표

III.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 변화

- 주요국의 2004년과 2005년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대부분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6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한국의 경우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로 교역비중이 0.5%로 증가했으며 2006년 발효될 싱가포르, EFTA, ASEAN을 고려하면 교역비중은 10.8%로 무려 10.3%포인트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은 2006년 발효될 중미 5개국 및 도미니크 공화국과의 FTA, 바레인, 오만 등을 고려할때, 교역 비중은 2005년 35.3%에서 2006년 36.1%로 증가할 전망
 - 일본의 경우 2005년 멕시코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교역 비중이 0.5%포인트 증가했으나 2006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과의 FTA가 발효 예정되어 있어 수출 및 교역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비중은 2005년 3.8%에서 2006년 11.6%로, 교역 비중은 2.9%에서 10.8%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은 2005년 7월부터 ASEAN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04년의 10.4%에서 2005년 19.6%로 교역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
 - 2006년 중 파키스탄, 칠레와의 FTA 발효가 예정되어 있어 교역 비중은 19.6%에서 19.8%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칠레는 2006년 Trans-Pacific SEP 및 중국, 인도 등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으로 교역 비중은 66.8%에서 75.0%로 8.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싱가포르의 경우 2005년 중 파나마, 카타르, Trans-Pacific SEP등과 협상을 타결시켰으며 2006년 동 협정의 발효가 예정되어 있어 2006년 수출과 교역 비중이 모두 3%포인트씩 증가한 55.6%와 56.7%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됨

<주요국의 FTA 체결국에 대한 교역 비중 변화(%)>



	2003년 12월 1)		2004년 12월 2)				2005년 12월 3)				2006년 12월 4)(예상)			
	수출 (%)	교역 (%)	수출 (%)	증감	교역 (%)	증감	수출 (%)	증감	교역 (%)	증감	수출 (%)	증감	교역 (%)	증감
한 국	0.0	0.0	0.3	+ 0.3	0.5	+ 0.5	0.3	-	0.5	-	10.1	+ 9.8	10.8	+ 10.3
미 국	38.3	33.2	40.6	+ 2.3	34.2	+ 1.0	42.5	+ 1.9	35.3	+ 1.1	44.4	+ 1.9	36.1	+ 0.8
중 국	17.7	10.4	17.7	-	10.4	-	24.8	+ 7.1	19.6	+ 9.2	25.2	+ 0.4	19.8	+ 0.2
일 본	3.1	2.4	3.1	-	2.4	-	3.8	+ 0.7	2.9	+ 0.5	11.6	+ 7.8	10.8	+ 7.9
칠 레	61.2	56.8	62.1	+ 0.9	66.8	+ 10.0	62.1	-	66.8	-	70.9	+ 8.8	75.0	+ 8.2
뉴질랜드	21.6	22.7	21.6	-	22.7	-	24.1	+ 2.5	25.1	+ 2.4	23.6	- 0.5	27.7	+ 2.6
싱가폴	41.1	43.9	52.5	+ 12.2	53.6	+12.2	52.6	+ 0.1	53.7	+ 0.1	55.6	+ 3.0	56.7	+ 3.0

- 1) '03년 12월 발효중인 국가와 '02년 수출입실적(IMF) 기준
 2) '04년 12월 발효중인 국가와 '03년 수출입실적(IMF) 기준
 3) '05년 12월 발효중인 국가와 '03년 수출입실적(IMF) 기준
 4) '06년 12월 발효 예정인 국가와 '04년 수출입실적(IMF) 기준

< 본 문 >

I. 2005년 추진 경과

1. 아시아

가. 일본

(1) FTA 정책

- 아시아 지역과의 FTA를 추구함과 동시에 2004년 타결된 멕시코에 이어 칠레와의 FTA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 추진 중임
- 일본은 ASEAN과의 FTA 협상 진행과는 별도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타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베트남과의 FTA도 검토 중임

(2) 최근 추진 동향

일본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국 가	싱가포르('02.1 체결), 멕시코('04.3 타결) 필리핀('04.11 타결) 태국('05.8 타결) 말레이시아('05.5 타결)	한국('03.12 개시) ASEAN('05. 4개시) 인도네시아('05. 7 개시)	칠레('05. 1 공동연구 개시) 스위스('05.11 공동연구 개시) 캐나다('05.12 공동연구 개시) 대만, 베트남, 호주

<멕시코>

- 2002년 11월부터 양국 정부간에 FTA 공식 협상이 시작된 이래 2003년 내 타결이 당초 목표였음

- 멕시코의 대일본 주력 수출상품인 돼지고기, 오렌지 주스 등의 개방문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로 여러 차례 협상이 결렬
- o 2004년 3월 12일 양국은 협상을 타결짓고 9월 고이즈미 총리와 폭스 대통령이 공식 서명하였음
- 2005년 4월 1일자로 FTA 정식 발효

<한국>

- o 2003년 12월 22일 서울에서 정부간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2개월 주기로 협상이 진행되어 2004년 12월까지 총 6차례 협상 이루어짐
- 상품 양허 부문에서는 한국측이 일방적인 개방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비관세 장벽이 주요 이슈가 됨
- 상품무역분과, 비관세조치분과, 투자/서비스분과, 기타 무역이슈분과, 분쟁해결분과, 협력분과, MRA 등 7개 협상분과 설치

<ASEAN>

- o 2002년 11월 5일 일-ASEAN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방안(CEP;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Plan)에 서명
- o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일본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ASEAN은 FTA 체결 교섭을 2005년에 시작하기로 합의
- o 도쿄 선언 채택(일본+ASEAN 10개국 정상회담, 2003.12.12)
 - 일본은 ASEAN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정치, 안보, 경제, 개발, 사회 문화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본과 ASEAN간 연대강화를 선언
 - 일본 역시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에 가입하여 ASEAN과의 안보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

- 2004년 11월 ASEAN+3 정상회담에서 일-ASEAN FTA를 골자로 하는 EPA 교섭 일정을 2005년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함
- 2005년 4월 13일~15일, 제1차 일-ASEAN FTA 협상이 개시된 이래 큰 진전 없음

<말레이시아>

- 2003년 ASEAN-일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로 했으며 2004년 1월 13일 협상을 개시해 2005년 5월 25일 타결
- 2005년 12월 13일 양국 정상에 의해 공식 서명되었으며 2006년 발효 예정임

<필리핀>

- 2003년 ASEAN-일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4년 2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음
- 2004년 10월까지 총 5차례의 협상을 거쳤으며 2004년 ASEAN+3 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아로요 대통령은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으며 세부 논의를 거쳐 2006년 발효를 목표로 함
- 주요 합의 내용은, 간호사 등에 대한 비자 여건 완화(노동 시장 개방), 철강의 대일 수입량의 60% 이상 관세 철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부 품목의 관세 철폐 등임

<태국>

- 2004년 2월 협상 개시
- 일본은 태국이 일본산 자동차 부품 및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앞당겨 철폐해 줄 것을, 태국은 일본이 태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문호를 넓혀줄 것을 요구해왔음

- 2005년 8월 니카가와 쇼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과 태국의 솜 킷 재무부 장관이 회담을 가지고 타결에 합의했으며 9월 8일 양국 정상은 2006년 상반기 중 공식 서명하기로 함 (2006년 4월 서명, 9월 발효 예정)

<캐나다>

- 2005년 3월 양국은 예비협의를 거쳐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캐나다 마틴 총리는 양국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으며 1년내 종료기로 함
- 2005년 12월 13일 제1차 일-캐나다 FTA 공동연구 진행

<칠레>

- 양국은 2005년 1월 31일 양국 FTA 공동연구를 개시한 후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공동연구를 종료했으며 내년 중 협상이 개시될 전망

<호주>

- 2002년 5월 일본이 호주에 FTA 체결을 제안한 이후로 2005년 4월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호주 헬렌 클락 수상은 양국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음

나. 중국

(1) FTA 정책

-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개방과 개혁 정책을 지속한다는 취지 아래 FTA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중국산 제품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대중 무역적자국인 미국, 일본 뿐 아니라 기타 다른 나라와도 무역마찰을 빚는 현상이 갈수록 점증하고 있어 새로운 통상 전략의 일환으로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세계경제 블록화에 대응하고 있음

(2) 최근 추진동향

중국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국가	홍콩('03.6), 마카오('03.10) *ASEAN, 칠레('05.11 서명) *파키스탄	뉴질랜드('04.12 개시) *GCC('05. 4 개시) 호주('05. 5 개시)	인도, 한국, 일본, Mercosur, 아이슬란드

*중-ASEAN FTA는 '04년 10월 상품 분야 타결, '05년 7월 발효 예정

*GCC 걸프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중-파키스탄 FTA: 2006년 1월부터 선자유화(EHP) 실시

<홍콩, 마카오>

- 홍콩('03.6.29), 마카오('03.10.17)와 CEPA를 체결, 2004년 1월부터 품목별 관세인하 시행

<아세안>

- 아세안과는 2002년 11월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 이래 협상을 시작했으며 아세안 6개 선발국은 2010년, 후발 4개국과는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목표로 함
- 양측은 2004년 10월 26일 상품분야에 대해 협상을 타결지었으며 중-ASEAN FTA를 2005년 7월부터 공식 발효

- 국가군별(중국, ASEAN 선진 6개국, ASEAN 후발 4개국), 품목별(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관세율 구간별로 별도로 정한 스케줄표에 의거 5~10년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

<뉴질랜드>

- o 2004년 5월 공동연구 종료 이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헬렌 클락 수상의 합의로 FTA 공식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o 2004년 12월 6일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05년 5월까지 3차례 협상 진행

<파키스탄>

- o 2005년 4월 쇼캣 아지즈 수상과 원자바오 총리는 양국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함
- 2005년 12월 7일-9일 2차 협상 종료 후 2006년 1월 1일부터 EHP 실행하기로 합의

<인도>

- o 2004년 10월 ASEAN+3 정상회담에서 만난 양국 총리는 양국간 공동연구회 설립을 서두르기로 합의
- o 2005년 4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인도와의 fta 체결 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공동연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음

<호주>

- o 2004년 10월 양국은 ‘교역과 경제에 관한 일반협정’(The Austrailia-China Trade and Economic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 양국간

FTA의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2005년 3월 마무리지음

- 2005년 5월 양국 FTA 협상을 개시후 현재까지 3차례 진행

<칠레>

- 2004년 8월 양국간 FTA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2004년 11월 APEC 회담을 계기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해 2005년 1월 협상을 시작함
- 2005년 10월까지 5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공식 서명함

<GCC>

- 2004년 7월 GCC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해 2005년 4월 협상을 개시하였음
- 현재 3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2006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함

다. ASEAN

(1) FTA 정책

- 내부적으로는 AFTA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의 FTA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 중
- 2005년 동아시아 주요국인 일본 및 한국과 협상을 개시했으며 호주+뉴질랜드와의 CER 협상도 시작함

(2) 최근 추진 동향

ASEAN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국가	AFTA('92.1), *중국('04.10) *인도	한국('05. 2월 개시) 일본('05. 4월 개시) 호주+뉴질랜드(CER)('05. 2월 개시)	미국, EU, 대만

*중-ASEAN FTA는 '04년 10월 상품 분야에 대해서 타결, '05년 7월 발효예정

*인도-ASEAN FTA는 2006년부터 발효예정이나 105개 특정상품에 한해 2004년 11월부터 관세인하 시작하는 조기자유화(EHP) 실시

<AFTA>

- 아세안 6개국간에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후발 4개국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10개국으로 늘어남
-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선발 6개국(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은 2010년까지, 후발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2015년까지 관세를 완전 철폐할 계획

<중국>

- 중국과는 2002년 11월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한 이래 협상을 시작했으며 아세안 6개 선발국은 2010년, 후발 4개국과는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목표로 함
- 2004년 10월 26일 상품분야에 대해 협상이 타결되어 2005년 7월부터 공식 발효
- 국가군별(중국, ASEAN 선진 6개국, ASEAN 후발 4개국), 품목별(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관세율 구간별로 별도로 정한 스케줄표에 의거 5~10년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

<일본>

- 2002년 11월 5일 일-ASEAN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CEP;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Plan)에 서명
-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일본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ASEAN은 FTA 체결 교섭을 2005년에 시작하기로 합의
- 2004년 11월 ASEAN+3 정상회담에서 일-ASEAN FTA를 골자로 하는 EPA 교섭 일정을 2005년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함
 - 2005년 4월 13일~15일, 제1차 일-ASEAN FTA 협상이 개시된 이래 큰 진전 없음

<인도>

- 2002년 11월 인도-아세안 정상회담(프놈펜)에서 양국간 공동성명을 통해 FTA 추진을 공식 발표
 - 2004년 10월 ASEAN 정상회담에서 2011년(후발 4개국 2016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설립 추진 합의
- 인도-ASEAN 상품무역협정은 2006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105개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부터 선자유화(EHP)를 실시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호주, 뉴질랜드 CER>

- ASEAN 경제 장관회의('04.09)에서 협상을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타결하기로 합의함
 - 2005년 2월 21일 1차 협상 개시

라. 싱가포르

(1) FTA 정책

- 다자주의를 지지하던 싱가포르도 2000년 들어 지역주의에 적극 가세하기 시작
 - 2000년 이후 뉴질랜드, EFTA, 일본, 호주, 미국, 요르단, 한국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2005년 한해만도 인도, 파나마, 카타르, Trans-Pacific SEP등과의 FTA를 타결시켰음

(2) 최근 추진 동향

싱가포르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국 가	AFTA, 뉴질랜드('00), EFTA('02), 일본('02), 호주('02), 미국('03), 요르단('04.5), 한국('04. 11타결), 파나마('05. 4 타결), 카타르('05. 6타결) 인도('05. 6 서명), Trans-Pacific SEP('05. 6 타결)	멕시코, 캐나다, 스리랑카, 쿠웨이트('05. 1개시) 파키스탄('05. 8개시)	중국-ASEAN, EU, 중국

*EFTA: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Trans-Pacific SEP: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 FTA

<요르단>

- 2003년 6월 고축통 총리의 양국간 FTA 체결 제안 후 총 3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4년 5월 타결
 - 2004년 5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양국은 FTA를 공식 체결했으며 양자간투자협정(BIT)도 체결했으며 2005년 8월 22일 발효

<멕시코>

- 2000년 7월부터 협상 개시,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협상 실시

<인도>

- 2003년 4월, 양국 정상간에 포괄적경제협력방안(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추진에 합의한 후 2003년 5월 협상 개시
 - 2005년 4월까지 총 13차례 협상 끝에 타결되었으며 6월 29일 공식 서명

<한국>

- 2004년 1월, 양국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여 5차례 공식 협상과 5차례의 실무협상을 거쳐 11월 29일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함
 - 2005년 8월 공식 서명, 12월 1일 한-싱 FTA 비준동의안 한국 국회 본회의 통과

<스리랑카>

- 2003년 8월, 스리랑카의 Hon. Ravi Karunanayake 상무장관이 싱가포르를 방문 양국간 FTA 추진을 협의
- CEPASS(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Sri Lanka and Singapore) 제1차 회의가 2003년 10월 개최되었음

<쿠웨이트>

- 2004년 10월 4일 싱가포르의 통상산업부 장관이 쿠웨이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 FTA 협상 개시에 합의했으며 2005년 1월 협상 개시

<파나마>

- 2004년 5월 협상 개시 후, 3차례 협상 끝에 2005년 4월 협상 타결

<카타르>

- 2004년 11월 협상 개시, 2005년 6월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

<Trans-Pacific SEP>

- 2003년 9월 P3(싱가폴, 뉴질랜드, 칠레) 협상 개시. 5차 협상('05. 4월)부터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하던 브루나이가 정식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음
- 2005년 6월 협상 타결, 2006년 1월 발효 예정

마. 태국

(1) FTA 정책

- 수출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통한 무역 확대를 적극 추진중
- 과거 AFTA 중심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아시아경제블록화를 통한 세계 3대 지역주의의 한축을 담당하고자 함

(2) 최근 추진 동향

태국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국 가	AFTA ('92.1), 인도 ('03.10) 호주('03.10 체결), *뉴질랜드('04.11 타결), 일본('05. 8 타결), 페루 ('05. 11 서명), *BIMST-EC	바레인, 미국('04.6 개시)	중국, 파키스탄, EFTA

* 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회원국: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 태국-뉴질랜드 FTA는 2004년 11월 상품 부문 타결

<인도>

- 2003년 10월 9일 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협정, 농업, 관광 및 생명공학 등의 상호협력 협정을 타결
 - 2003년 12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총 6차례 실무협상을 거쳐 최종 타결되었으며 2004년 9월 1일부터 선자유화 실시
 - 협정의 주요 내용
 - 2010년까지 양국간 모든 거래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 조기관세철폐(Early Harvest Program)로 과일과 생선통조림, 보석류, 에어컨, 텔레비전, 라디오, 가구 등 82개 품목의 관세율이 '04년 9월 1일부터 현수준의 50% , '05년 9월부터는 25% 수준으로 인하되며 '06년에 완전 무관세화
 - 투자와 서비스거래는 2006년까지 자유화
 - 원산지 규정에 대한 논의는 추후 협의기로 함

<바레인>

- 바레인과는 2003년 1월 15일 서명을 통해 2010년까지 양국간 경제연대협정(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을 체결하기로 합의
 - 동 합의에 따라 섬유, 식품,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626개 품목에 대해 0~3%의 관세율 적용

<일본>

- 2004년 2월 협상 개시
 - 태국은 일본이 태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문호를 넓혀줄 것을, 일본은 태국이 일본산 자동차 부품 및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앞당겨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해왔음

- 2005년 8월 니카가와 쇼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과 태국의 솜 킷 재무부 장관이 회담을 가지고 타결에 합의했으며 9월 8일 양국 정상은 2006년 상반기 중 공식 서명하기로 함 (2006년 4월 서명, 9월 발효 예정)

<미국>

-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과 폭넓은 무역관계를 맺으려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FTA체결 논의가 이루어짐
- 2004년 6월 28일 하와이 동서센터에서 협상 개시 후 현재까지 4차례 협상 진행

<BIMST-EC>

* 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회원국: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 2004년 2월 FTA 기본 협정에 서명했으며 2006년 7월 1일부터 관세인하를 단행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인도, 태국, 스리랑카)

- 부탄, 미얀마, 네팔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

<페루>

- 2004년 초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공식서명했으며 2006년 중반 발효 예정

<뉴질랜드>

- 2004년 6월 15일 공식 협상 개시하여 2004년 11월 상품 부문 타결
 - 2005년 4월 19일 공식 서명, 2005년 7월 발효

<파키스탄>

- 2005년 5월 태국 탁신 총리와 파키스탄 쇼캣 아지즈 총리는 회담을 가지고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했음
- 2005년 11월, 파키스탄 주재 태국대사는 태국과 파키스탄이 FTA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를 곧 개시할 것이라고 밝힘

<EFTA>

- 2004년 3월 태국과 스위스 정상들간에 FTA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2005년 5월 양측간 FTA를 위한 사전예비협의를 가짐

바. 인도

(1) FTA 정책

- 1991년 인도는 개혁, 개방 정책의 도입 이후 ‘동방정책(Look East)’을 표명하면서 한국, ASEAN 및 일본과의 경제 관계 강화를 도모하기 시작함

(2) 최근 추진 동향

인도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검토중
국가	스리랑카('98), 방글라데시('03) 아프가니스탄('03), 태국('03), SAFTA*, ASEAN, BIMST-EC*, 칠레('05. 11타결), 싱가폴('05. 4 타결), Mercosur('05. 3 서명)	한국, 남아공, 이집트, 우루과이, SACU, 중국, 일본, GCC

*BIMST-EC회원국: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SAFTA(South Asian FTA: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인도-ASEAN FTA는 2006년부터 발효예정이나 105개 특정상품에 한해 2004년 11월부터 관세인하 시작하는 조기자유화(EHP) 실시

<태국>

- 2003년 10월 9일 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협정, 농업, 관광 및 생명공학 등의 상호협력 협정을 타결
 - 2003년 12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총 6차례 실무협상을 거쳐 최종 타결
- 2004년 9월 1일부터 선자유화(Early Harvest Program)실시로 과일, 생선통조림, 보석류, 에어컨, 텔레비전, 라디오, 가구 등 82개 품목의 관세율이 '04년 9월 1일부터 현수준의 50%, '05년 9월부터 25% 수준으로 인하되며 2006년에 완전 무관세화

<싱가포르>

- 2003년 5월 양국 정상 간 포괄적경제협력방안협정(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협상 개시 선언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추진, 상품과 서비스 교역 증진 및 투자 진흥을 위한 협조방안 모색, 향후 12개월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에 합의함
 - 2005년 4월까지 총 13차례의 협상을 개최해 타결되었으며 6월 29일 공식 서명함

<ASEAN>

- 2002년 11월 인도-아세안 정상회담(프놈펜)에서 양국간 공동성명을 통해 FTA 추진을 공식 발표
 - 2004년 10월 ASEAN 정상회담에서 2011년(후발 4개국 2016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설립 추진 합의
- 인도-ASEAN 상품무역협정은 2006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105개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부터 선자유화(EHP)를 실시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Mercosur>

- 2004년 1월 특혜관세협정 서명 후 2004년 3월 FTA 협상 개시하여 2005년 3월 뉴델리에서 양측은 공식 서명함

<SAFTA>

- 2004년 1월 SAFTA 기본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함
 - 1993년 4월에 결성된 SAPTA(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를 바탕으로 FTA 체결

<칠레>

- 양국은 2004년 8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 11월 24일 4차례 협상 끝에 타결지었음
 - 이번 협정으로 인도산 296개 품목과 칠레산 266개 품목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관세 인하가 단행될 것임. 인도는 자동차, 섬유, 화학제품, 의약품, 농기계 등의 수출이 증대되고 칠레는 동, 셀룰로즈, 요오드, 합판, 어분, 연어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GCC>

- 2004년 8월 26일 경제협력력을 위한 기본 협정(India-GCC Framework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에 공식 서명했으며 2006년 상반기 중 공식이 개시될 예정임

<일본>

- 2005년 5월 2일 고이즈미 총리와 Manmohan Singh 총리는 2005년 6월까지 공동연구 패널을 구성하여 공동연구 결과를 2006년 6월까지 제출기로 함

사.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2005년 중 일본 및 파키스탄과의 FTA 협상을 타결시켰으며 호주, 뉴질랜드와는 각각 5월에 협상을 개시함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국가	AFTA, 일본('05. 5 타결) 파키스탄('05. 12 서명)	호주 ('05 .5 개시), 뉴질랜드 ('05 .5 개시)	인도, 미국

<일본>

- 2003년 ASEAN-일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로 했으며 2004년 1월 13일 협상을 개시해 2005년 5월 25일 타결지음
 - 2005년 12월 13일 양국 정상에 의해 공식 서명되었으며 2006년 발효 예정임

<호주>

- 2004년 8월, 말레이시아는 호주와의 FTA 체결 의사를 피력했으며 양국 FTA 타당성 검토 작업을 2005년 상반기에 완료기로 함
- 2005년 4월 존하워드 수상과 압둘라 바다위 총리는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하여 2005년 5월 협상 개시함

<뉴질랜드>

- 양국은 2005년 5월 FTA 협상을 개시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시킴

<인도>

- 2004년 12월, 말레이시아 수상은 인도-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FTA체결을 제안한 바 있음

<미국>

- 2003년 6월, APEC 회의 중 당시 USTR 대표인 Zoellick이 양국간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제안
 - 2004년 5월 TIFA 체결
 - 2005년 10월 USTR은 양국간 FTA 협상을 TPA(무역촉진법) 종료 시점인 2007년 6월에 타결하기를 희망

<파키스탄>

- 2005년 5월, 말레이시아의 Badawi 총리는 파키스탄의 Shaukat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FTA 협상 진전이 성공적이며 연말까지 타결 시키기를 희망함
- 2005년 12월 양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선자유화를 실시하는데 합의 하고 서명했음
 - 2006년 1월부터 파키스탄은 125개의 말레이시아산 품목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114개의 파키스탄산 품목 등 총 234개 품목의 관세 인하가 실시됨

아. 대만

(1) FTA 정책

-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 중국은 대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어느 국가도 중국과는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음

(2) 최근 추진동향

대만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국가	파나마('03.8) 과테말라('05. 7 서명)	니카라과('04. 9 개시)	일본, 미국, ASEAN 파라과이

<파나마>

- o 2002년 10월부터 5차례의 협상을 통해 2003년 8월 양국간 FTA를 체결, 2004년 1월부터 발효

<과테말라>

- o 2005년 3월 중 협상을 개시하여 7월 31일 공식 서명함
 - 2006년 1월 발효 예정

<ASEAN>

- o 2003년 7월, 대만이 ASEAN에 FTA 체결에 관한 관심을 표명했으나 중국의 방해로 큰 진전이 없음

<일본>

- o 대만 경제부 장관이 일본과의 FTA 체결 희망 의사를 피력한 바 있음

<미국>

- o 2002년 10월, USITC(美 국제무역위원회)가 양국간 FTA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003년 3월 미하원에 대만과의 FTA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를 상정한 바 있음

2. 미주 지역

가. 미국

(1) FTA 정책

- 2001년 부시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옴
 -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첫 FTA(1985년) 이후 2000년까지 4개국(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과 FTA 체결을 추진해 왔으나 부시 1기 정부 아래에서 칠레, 호주 등 무려 10개국과 FTA를 성사시켰음
- 부시는 2기 정부 하에서도 FTA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강한 미국 경제를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제보고서를 의회에 송부한 바 있음
 - 미국은 중동지역 및 걸프연안국간 자유무역지대를 2013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미 이스라엘, 요르단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바레인, 오만과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을 이루었고 2005년 아랍에미리트와 협상을 개시했음

(2) 최근 추진 동향

미국의 FTA 추진동향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국 가	이스라엘('85), NAFTA('94), 요르단('02), 칠레('02), 싱가포르('03), 호주('04.2타결), 모로코('04.3 타결) CAFTA(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바레인('04.5 타결), 도미니카공화국('04.3 타결), 오만('05. 10 타결)	FTAA, SACU, 태국('04.6개시), 파나마('04.4개시), 페루·콜롬비아·에콰도르 ('04.6개시), UAE('05. 3 개시)	ASEAN, 인도네시아, 이집트, 대만, 우루과이, 필리핀

<중남미 5개국+도미니크 공화국>

- 미국과 중남미 5개국(온두라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은 2003년 1월 8일 양 지역간 FTA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4개국과는 2003년 12월 FTA 협상을 타결지음 (코스타리카와는 '04년 1월 협상을 타결지었음)
- 도미니카 공화국을 미-CAFTA FTA에 포함시키기 위해 협상을 시작해 2004년 3월 타결지음

<모로코>

- 2002년 4월 부시대통령이 모로코에 대해 FTA를 제안하여 2003년 1월 FTA 협상을 개시하여 3월에 협상을 타결지음
- 양국 FTA가 발효되면 전체 품목 중 95% 이상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나머지 품목은 9년에 걸쳐 관세가 인하, 철폐될 예정
- 2004년 6월 공식 서명, 7월 비준안이 미 상하원을 통과함

<호주>

- 2003년 3월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03년 12월까지 협상을 타결시킬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었음
- 2004년 2월 양국은 협상을 타결시켰으며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2005년 1월부터 양국간 FTA를 정식 발효기로 해 '05년 1월 1일자로 협정 발효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 미국과 SACU(남아공,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레소토, 나미비아)는 2003년 6월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05년까지 타결 계획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 USTR 질릭 대표는 2003년 11월 FTAA 회의 중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와 2004년부터 각각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힘
- 2004년 5월 협상을 개시해 2005년 11월까지 18개월간 총 14차례의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협상 진행 방식을 개별국별 양자협상으로 변경했음

<오만>

- 2005년 3월, 미국은 중동지역 및 걸프연안국간 자유무역지대를 201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오만과 FTA 협상을 개시
- 2005년 10월 협상이 타결되어 공산품의 경우 협정 발효 즉시 100% 관세가 철폐되고 농산물은 10년에 걸쳐 철폐될 것임

<UAE>

- 2005년 3월, 미국은 중동지역 및 걸프연안국간 자유무역지대를 201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FTA 협상을 개시
- 2005년 11월 현재, 3차례의 협상을 진행함

<바레인>

- 2003년 8월, USTR은 2004년 1월부터 공식협상 개시 의사를 의회에 공식 통보하고 2004년 1월 공식 협상 개시해 2004년 5월 타결
- 2004년 9월 14일 공식서명
- 2005년 7월 7일 비준안 바레인 의회 통과, 12월 6일 비준안 미하원 통과, 12월 13일 비준안 미상원 통과

나. 캐나다

캐나다의 FTA 추진동향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국가	NAFTA('94) 칠레('97) 이스라엘('97) 코스타리카('01)	FTAA, EFTA 싱가포르, 중남미4개국, 한국('05. 7 개시) Mercosur('05. 2 개시)	Andean Community, 일본

<EFTA>

- 1998년 10월부터 협상 개시

<싱가포르>

- 2001년 10월부터 협상 개시, 지금까지 6차례 협상 개최

<중남미 4개국>

- 2003년 3월 제 7차 협상을 개최하였음

<한국>

- 2004.11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예비 협의 개최에 합의하여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예비 협의 진행함
 - 2005년 7월 양국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여 현재까지 3차례 진행

<Mercosur>

- 2005년 2월 협상 개시

다. FTAA (미주자유무역지대)

- 1990년 부시 전 대통령이 외채경감, 무역 및 투자확대, 환경문제를 포함하는 ‘범미자유무역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EAI)’을 제안하면서 시작
 - 미주지역 3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FTAA는 현재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협상으로 2005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미국과 브라질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협상이 크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미국의 FTAA 협상 추진은 중남미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쉽 유지, 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시장개방 촉진, 미국의 對남미 수출 증대 등을 목표로 함
- 2003년 11월, 제8차 FTAA협상(11.21-22)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
 - 이번 각료회의는 미국과 브라질이 공동 주관, 34개 당사국이 모여 2005년 1월 1일을 시한으로 FTAA의 결성을 협의하는 회의였음
 - 공동의장국인 미국과 브라질 양국은 공동으로 기초했던 내용을 근간으로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
 - FTAA 마무리 협상은 각국 무역담당 차관들로 구성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C)의 결정에 따른다는 원칙 선언
 - 조직운영위원회가 18차 회의 이전까지 FTAA 조직운영안의 청사진 제시
 - 시장접근(Market Access) 협상을 2004년 9월말까지 완료
- 2004년 브라질에서 제9차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2005년 1월까지 협상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05년 12월에 FTAA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음

-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여러 참여 국가들의 반발로 2005년내 FTAA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짐
 - 캐나다, 아르헨티나는 내부적으로 사회운동, 무역노조, NGO, 신자유주의 반대 세력 등의 압력을 받고 있음
 -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들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FTAA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한 반발감이 있음
 - 미국은 강력한 지재권 보호, 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규정의 협상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브라질은 미국의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가 없는 이상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미국은 FTAA 협상 과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브라질 등에 우회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개별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라. 멕시코

(1) FTA 정책

- 멕시코는 FTA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한 국가 중 하나로 현재 FTA 체결국이 43개국('04.5월 이후 EU 확대 반영함)에 달함
 - 경제개방과 개혁정책으로 교역과 외국인 투자는 급성장했지만 경제성장과 고용여건은 정체되거나 악화되었음
 - 또한 그동안 체결된 FTA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해 온 구조조정에 기업들의 피로가 누적됨
 - 이에 2005년 10월 대외무역회의에서 멕시코 정부와 민간 부문은 2003년 11월에 발표된 신규 FTA 체결 일시 중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을 재확인했음

(2) 최근 추진동향

멕시코의 FTA 추진동향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국 가	칠레('92), NAFTA('94),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95), 니카라과('98),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01), 이스라엘('00), EU 25개국 ('00), EFTA('00), 우루과이('03), 일본('04.3타결)	FTAA, 싱가포르, MERCOSUR, 아르헨티나	한 국, 페 루, 뉴질랜드

<일본>

- 2002년 11월부터 공식 협상이 개시된 이후 당초 2003년 10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시켰으나 돼지고기, 오렌지, 오렌지쥬스 등 일부품목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04년 3월 타결지음
- 2004년 9월 서명, 2005년 4월 1일자로 협정 발효

<한국>

- 2004년 10월 양국은 FTA를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2005년 8월까지 총 6차례의 공동연구를 진행함
- 2005년 9월 한-멕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추진에 합의했음

<싱가포르>

- 2000년 7월부터 협상 개시, 현재까지 6차례 협상 개최

<우루과이>

- 2002년 7월 협상을 개시해 2003년 9월 타결된 양국간 FTA는 2004년 7월 15일부터 발효

- 기존의 경제보완협정(Economic Complimentation Agreement)을 대체, 포함할 예정임

마. 칠레

(1) FTA 정책

- o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하여 미주지역,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
- 최근에는 중국, 인도, 일본 등 여타 아시아 국가와도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2) 최근 추진동향

칠레의 FTA 추진동향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국 가	캐나다('97), 멕시코('97), MERCOSUR('96), 볼리비아('93), 베네수엘라('97), 콜롬비아('98), 에콰도르('98), 미국('02), EU 25국('96), EFTA('03), 한국('03), 중국('05. 11 서명), 인도 ('05. 11 타결), Trans-Pacific SEP('05. 6 타결)	FTAA 볼리비아, 중남미5개국, 파나마('05. 6 재개) 페루 ('05. 8개시)	일본

*Trans-Pacific SEP: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 FTA

<중국>

- o 2004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라고스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양국 FTA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함
- o 2005년 1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 10월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개최 하였음. 2005년 11월 18일 부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공식 서명

<인도>

- 양국은 2004년 8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 11월 24일 4차례 협상 끝에 타결지었음
- 이번 협정으로 인도산 296개 품목과 칠레산 266개 품목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관세 인하가 단행될 것임. 인도는 자동차, 섬유, 화학제품, 의약품, 농기계 등의 수출이 증대되고 칠레는 동, 셀룰로즈, 요오드, 합판, 어분, 연어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

- 고이즈미 총리와 라고스 대통령은 '04년 APEC 정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연구그룹 구성에 대해 회담을 가짐
- 2005년 1월 31일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2006년 중 협상을 개시할 예정임

<Trans-Pacific SEP>

- 2003년 9월 P3(싱가폴, 뉴질랜드, 칠레) 협상 개시. 5차 협상('05. 4월)부터 옴저버 형식으로 참여하던 브루나이가 정식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음
- 2005년 6월 협상 타결, 2006년 1월 발효 예정

<파나마>

- 양국은 1996년 FTA 협상을 개시한 바 있으나 1999년 이후로 중단되어 왔음
- 칠레 라고스 대통령은 임기(2006년 3월)내에 양국 FTA를 타결시키고자 2005년 6월 협상을 재개함

3. 유럽 지역

가. EU

(1) FTA 정책

- 2001년 DDA 협상 출범 후 이에 전념하기 위해 동 협상기간 중에는 새로운 FTA 협상 개시를 자제해 왔음
 - 전임 라미 집행위원은 DDA 협상 기간 중 새로운 FTA 협상을 개시하지 않는다는 다자주의 우선원칙을 고수했음
 - 신임 만델슨 집행위원이 취임한 후 통상총국 내에는 FTA 병행론이 거론되었으나, DDA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자주의 우선원칙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힘
- EU는 지역공동체간 FTA 체결을 선호하는데 그간 개별국 위주로 체결한 FTA의 성과가 수출증대, 개도국의 교역지원 등의 목표 달성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임
 - EU는 FTA를 지역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상대지역의 경제통합도 촉진시킬 수 있고 그 지역국가 전체의 대EU 교역도 다변화될 수 있으며 보다 큰 시장으로 발전하여 EU 상품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음
 - 결과적으로 Mercosur와 GCC 등 지역공동체와의 FTA 협상만 진행하게 되었음
- 또한 EU는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는데 이는 다자교역 체계의 내실과 발전을 위해 거대 경제권간의 교역은 WTO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따라서 중국, 인도, 미국 등과의 FTA는 쉽게 예상되는 실익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고 있음

(2) EU 확대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5년 4월 EU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가입의정서는 2007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경우, 2007년 1월 1일 EU 가입가능여부가 2006년 6월이 되어야 확정될 예정임
- 내년 6월 각 후보국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EU 집행위에 제출되면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을 1년 지연시킬지에 대해 권고안을 작성해 EU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임

(3) 최근 추진 동향

EU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국가	EU(25개 회원국) EFTA,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터어키, 칠레 등	MERCOSUR, GCC	ASEAN, 대만, 싱가포르, CAN

<ASEAN>

- 2003년 4월, 양블록간 무역 및 투자확대를 위한 기본협정 (Trade-Regional EU-ASEAN Trade Initiative) 체결에 합의

<GCC>

- 1989년 EU-GCC협력 협정에서 FTA 협상을 약속하였으며 2001년 7월 EU 이사회는 GCC의 관세 동맹 설립을 조건으로 FTA협상 추진을 승인하였음
- 2002년 3월 협상이 개시되어 2004년 1월까지 총 8차례의 협상을 개최했음

- 그러나 2004년 5월 제14차 EU-GCC 공동이사회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에서 양측은 상품교역의 대부분이 FTA에 포함될 것을 밝혔으며 EU는 인권, 이민문제 등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조만간 이에 대한 추가 협상이 재개될 예정

나. EFTA

(1) FTA 정책

- o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EU의 확대에 자극받아 중동구유럽, 중남미, 지중해 연안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 중
- 1992년 EFTA 최초의 FTA를 터키와 체결한 이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중동구 유럽, 발틱연안 국가, 아프리카 등으로 점차 그 체결 대상국을 확대함
- 2000년대 들어 유럽대륙을 넘어 주요 교역국인 멕시코('00), 싱가포르('02), 칠레('03)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우리나라와도 2005년 7월 협상을 타결하고 내년 7월 협정 발효를 앞두고 있음
- 최근 들어 걸프만연안국가(Gulf Co-operation Council), ASEAN, MERCOSUR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 추진도 적극 검토

(2) 최근 추진 동향

EFTA의 FTA 추진 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국 가	EU(25개국), 터키('91), 이스라엘('92), 폴란드('92), 루마니아('92), 헝가리('93), 불가리아('93), 체코('93), 슬로바키아('93), 슬로베니아('95), 에스토니아('95), 라트비아('95), 리투아니아('95), 모로코('97), 멕시코('00), 요르단('01), 싱가포르('02), 칠레('03), 튀니지('04. 12 서명), SACU('05. 6 타결), 한국('05. 7 타결)	이집트, 레바논, 캐나다, 남아공, 알바니아	GCC, ASEAN, MERCOSUR, 알제리, 태국,

* SACU(South Africa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

<싱가폴>

- 2001년 7월,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시한 이후 2002년 6월 FTA협정 타결, 2003년 1월, EFTA-싱가폴FTA 협정발효

<칠레>

- 2000년 12월, 칠레와의 FTA 협상이 처음 개시된 이후 2년 6개월 만인 2003년 6월 EFTA-칠레간 FTA 타결

<튀니지>

- 1996년 양측은 FTA 협상을 개시하여 6차례 협상 개최 끝에 2004년 타결에 이르렀으며 2004년 12월 17일 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공식 서명
- 2005년 6월부터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튀니지 사이의 FTA가 발효됨(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는 국내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효할 예정)

<남아공>

- 2001년 6월, FTA 체결을 위한 예비회담 개최, 2003년 5월, 제1차 FTA 협상 개최

<걸프연안국>

- 2000년 5월, 걸프연안국 협력위원회(GCC;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와 상호협력협정 체결, 2003년 1월 1차 합동회의 개최

<한국>

- 2004년 8월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10월 마무리되었으며 12월 16일 한-EFTA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한-EFTA FTA의 정부간 협상의 공식 개시를 선언
 -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4차례의 협상을 거쳐 타결되었으며 12월 15일 WTO 각료회의(홍콩)에서 공식 서명하였음
 - 각국의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여 2006년 7월경 발효 예정

<태국>

- 2005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양측은 예비협의를 개최하였음
 - 태국은 현재 EFTA에 대한 투자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의 일부 해산물 통조림에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양측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힘

4. 대양주 지역

가. 호주

(1) FTA 정책

- 호주는 거대유망시장인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경제권과의 연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자국의 주력품목인 광물자원과 농산물 및 식품 등의 시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ASEAN 국가 및 중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함
- 또한 제조업의 상대적 미발달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공산품 수입 비중을 낮추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진출 기회를 넓힐 목적으로 FTA를 적극 추진함

(2) 최근 추진동향

호주의 FTA 추진동향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국 가	파푸아뉴기니('77), 뉴질랜드('83), 싱가포르('02), 태국('03.10 타결), 미국('04.2 타결)	중국('05. 5 개시), 말레이시아('05. 5 개시), 뉴질랜드-ASEAN('05. 2 개시)	일본, 멕시코, 한국

<싱가포르>

- 호주가 뉴질랜드와 CER(Closer Economic Relations) 협정을 체결한 이후 20년만에 처음 체결한 FTA로 2003년 7월부터 발효

<미국>

- 호주와 미국은 2002년 11월 양국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2003년 3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였음

- 2004년 2월 협상을 타결하고 5월 서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발효

<태국>

- o 태국과의 FTA는 2002년 5월 개시되었으며, 2003년 초부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2003년 10월 협상 타결, 2004년 7월 공식 서명하였으며 2005년 1월 발효

<뉴질랜드, ASEAN CER>

- o 2004년 11월 ASEAN+3 정상회담에서 호주 외무 장관은 호주-뉴질랜드-ASEAN FTA 체결을 위해 2005년 중 협상을 개시하여 2년내 타결할 것에 합의함
- 2005년 2월 21일 1차 협상 개시

<중국>

- o 2003년 10월 중국 Hu Jintao 국가주석의 호주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FTA 체결을 위한 교역 및 경제에 관한 일반협정에 서명하였음
- 양국은 2005년 3월 FT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5월부터 협상을 개시해 11월까지 3차례의 협상을 진행시켰으며 조속한 타결이 전망됨

<말레이시아>

- o 2005년 4월 하워드 수상과 바다위 총리는 양국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여 5월부터 협상을 개시해 진행 중임

<일본>

- 2005년 4월 고이즈미 총리와 하워드 수상은 양국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여 2005년 11월 제1차 공동연구를 개최함

나. 뉴질랜드

(1) FTA 정책

- 뉴질랜드는 2000년 이후 아시아 및 대양주 지역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태국, 싱가포르와 이미 FTA를 체결했으며 칠레-브루나이-뉴질랜드-싱가폴 사이의 FTA인 Trans-Pacific SEP도 실질적으로 타결됨
 - 한편, 중국, 호주-ASEAN,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일 진행중임

(2) 최근 추진동향

뉴질랜드의 FTA 추진동향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국가	호주('83), 싱가포르('00), 태국('04.11) Trans-Pacific SEP('05. 6 타결)	중국('04.12 개시), 호주-ASEAN('05. 2 개시), 말레이시아('05. 5 개시)	미국, 멕시코

*태국-뉴질랜드 FTA는 2004년 11월 상품 부문 타결

*Trans-Pacific SEP: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 FTA

<태국>

- 2003년 10월 탁신 총리와 헬렌 클락 수상이 양국간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에 체결하기로 합의한 이래 공동연구를 실시해 협상의 토대를 다짐
 - 2004년 6월 15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1차 협상 개시하여 2004년 11월 양국 정상은 상품 부문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함

- 2005년 7월 협정 발효

<호주, ASEAN CER>

- o 2004년 11월 ASEAN+3 정상회담에서 호주 외무 장관은 호주-뉴질랜드-ASEAN FTA 체결을 위해 2005년 중 협상을 개시하여 2년내 타결할 것에 합의함
- 2005년 2월 협상 개시

<중국>

- o 2004년 5월 공동연구 종료 이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헬렌 클락 수상의 합의로 FTA 공식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2004년 12월 6일 협상 개시 후 진행 중임

<말레이시아>

- o 양국은 2005년 5월, 콰라룸푸르에서 협상을 개시했으며 협상 진행이 순조로울 경우 2007년 1월 협정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호주-말레이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한 결과, 발효 후 20년간 말레이시아 GDP는 약 48억 달러, 호주 GDP는 약 16억 달러 증대될 것임

II. 2006년도 FTA 추진 일정

1. 2006년 발효, 협상 개시 및 타결 예정 FTA

- 2006년도에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FTA는 22건으로 그 중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 Trans-Pacific SEP, 중국-파키스탄 EHP(선자유화), 말레이시아-파키스탄 EHP가 1월 1일부터 발효
 - 3월초에 한국-싱가폴 FTA가 발효되며 7월에 한국-EFTA, 한국-ASEAN, BIMSTEC 등의 협정 3건이 발효 예정임. 또한 9월에는 일본-태국 FTA 발효가 예정되어 있음
 - 싱가포르-파나마 FTA와 일본-태국 FTA의 공식 서명이 각각 1월과 4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후속절차가 조속히 끝날 경우 연내 발효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2006년중 타결을 목표로 하는 FTA 협상 건수는 적어도 5건이며, 이 전부터 협상이 진행중인 FTA가 추가적으로 타결될 경우 그 건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캐나다, 미국-아랍에미리트, 중국-GCC, 중국-호주 FTA의 협상 타결이 예상되며 연초에 개시되는 한국-멕시코 SECA(전략적경제보완협정)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함
- 2006년에는 한국-인도 CEPA, 일본-칠레 FTA 등의 협상 개시가 예정되어 있음
 - 이 외에 현재 FTA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정부간 검토단계에 있는 한-MERCOSUR FTA, 일본-캐나다 FTA 등의 공동연구가 종료되는 대로 협상 개시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음

<2006년도 전세계 FTA 추진 일정>

2006	발효 일정	협상 및 공동연구 일정
1월	▪ 중-파키스탄 EHP ▪ 말레이시아-파키스탄 EHP ▪ Trans-Pacific SEP ▪ SAFTA	▪ 일-베트남 공동연구 개시 ▪ 싱가포르-파나마 서명
2월		▪ 한국-인도 협상 개시
3월	▪ 한국-싱가폴	
4월		▪ 일본-태국 서명
5월		▪ 한-MERCOSUR 공동연구 종료
6월		▪ 일본-인도 공동연구 결과 제출
7월	▪ 한국-ASEAN ▪ 한국-EFTA ▪ BIMSTEC	
9월	▪ 일본-태국	
연중 일정		
▪ 한국-캐나다 연내 타결 ▪ 한국-멕시코 연초 협상 개시, 연내 타결 목표 ▪ 한국-중국 연말까지 민간차원 공동연구 종료 ▪ CAFTA-DR 연초 발효 ▪ 미국-바레인 연중 발효 ▪ 미국-오만 연중 서명 및 발효 ▪ 미국-아랍에미리트 연중 타결 목표 ▪ 일본-말레이시아 연중 발효 ▪ 일본-필리핀 연초 서명, 연중 발효 ▪ 일본-호주 연중 공동연구 개시 ▪ 일본-캐나다 연중 공동연구 종료 ▪ 일본-칠레 연중 협상 개시 ▪ 중국-칠레 연중 발효 ▪ 중국-GCC 연중 협상 타결 ▪ 중국-호주 연중 타결 ▪ 싱가포르-인도 연중 발효 ▪ 싱가포르-카타르 연중 발효 ▪ 태국-페루 2006년 중반 발효 예정 ▪ 인도-MERCOSUR 연중 발효 ▪ 인도-칠레 연중 발효 ▪ EFTA-튀니지 연중 발효 ▪ EFTA-SACU 연중 발효		

2. 2006년도 주요 국가별 FTA 추진 일정

가. 한국

- 싱가포르의 경우 2005년 8월 공식서명을 거치고 12월 1일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3월초 협상 발효가 전망됨
- EFTA와는 2005년 12월 15일 홍콩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공식서명을 마쳤으며 한국을 비롯한 각 회원국별 국내절차를 고려하여 2006년 7월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ASEAN과는 2005년 11월까지 6차례의 협상을 개최했으며 12월 9일 한-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상품자유화방식에 합의했음
 - 2006년 7월에 상품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내년 4월중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말까지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을 지속해 '06년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
-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는 일본과의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캐나다와는 2005년 3차례의 협상을 진행했고 2006년 2월 4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2006년 중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멕시코와는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P) 협상을 연초 개시하여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함
- 인도와는 2005년 공동연구를 종료했으며 2006년 2월중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됨

- Mercosur와는 2006년 5월경 4차 공동연구를 마지막으로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과정을 종료할 예정임
- 미국과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양국 정부간 FTA 추진을 위한 비공식적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스크린쿼터, 소고기수입 개방, 자동차 매연가스 규제, 약가 산정 문제 등의 해결에 따라 협상 개시여부가 결정될 것임
- 2005년부터 한국의 KIEP와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민간연구기관 차원에서 양국 FTA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인데 2006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함

<한국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상대국	2006년 일정
▪ 싱가포르	3월초 발효 예상
▪ ASEAN	4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7월 상품무역협정 발효, 연내 타결 목표
▪ EFTA	7월 협정 발효 예상
▪ 캐나다	2월 4차 협상을 시작으로 연내 타결 목표
▪ 멕시코	연초 협상 개시, 연내 타결 목표
▪ 인 도	2월중 CEPA 협상 개시 예정
▪ Mercosur	5월 공동연구 종료 예정
▪ 중 국	연말까지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진행 예정

나. 미국

- CAFTA-DR(중남미 5국, 도미니크 공화국)과의 FTA, 바레인과의 FTA 비준안이 2005년 말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2006년 중 발효가 예상됨
- 2005년 10월 오만과 FTA가 타결됨으로써 내년 중 서명, 비준안 통과, 발효 등이 예상됨

<미국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6년 일정
▪ 중미 5개국 및 도미니카 ▪ 바레인 ▪ 오 만 ▪ FTAA ▪ CAN ▪ 아랍에미리트	2006년 초 발효 예상 2006년중 발효 예상 2006년중 공식 서명, 발효 예상 협상국간 이해관계 충돌로 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CAN 전체가 아닌 개별국별 협상 진행 예정 2006년내 협상 타결 목표

* CAN 안데안국가연합: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다. 일본

- 2005년 중 협상을 타결하거나 마무리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과는 내년 중 발효가 예상되며 인도네시아와는 2006년 중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칠레와는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2006년 중 협상을 개시할 것임
- 베트남, 호주와는 2006년 공동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며 2005년 이미
공동연구를 시작한 캐나다, 스위스와는 2006년내 종료를 목표로 함
- 인도와는 2006년 6월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임

<일본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6년 일정
▪ 말레이시아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중 발효 예정
▪ 필리핀	2006년 초 서명, 연내 발효 예정
▪ 태 국	2006년 4월 서명, 9월 발효 예정
▪ 베트남	2006년 1월 공동연구 개시 예정
▪ 인도네시아	2005년 7월 협상 개시 후 2006년 진행 예정
▪ 호 주	2005년까지 공동연구 틀을 확정하고 2006년 중 공동연구 개시 예정
▪ 캐나다	2006년내 공동연구 종료 예정(2005년 12월 개시)
▪ 칠 레	2005년 1월에 개시한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2006년중 협상 개시 예정
▪ 스위스	2005년 11월 공동연구 개시 후 2006년에도 계속 진행 예정
▪ 인 도	2006년 6월 공동연구 결과 제출 예정

라. 중국

- 중국과 파키스탄은 2006년 1월부터 상품무역분야에 대해 선자유화(EHP)를 실시함
 - 2005년 11월 공식서명 절차를 마친 칠레와는 2006년내 발효 예정
- 2005년중 협상을 개시한 GCC와 호주의 경우, 2006년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국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6년 일정
▪ 파키스탄	1월부터 선자유화(EHP) 실시
▪ 뉴질랜드	2004년 12월부터 협상 진행 후 2006년 협상 지속될 예정
▪ 칠레	2006년 중 발효 예정
▪ GCC	2006년말까지 협상 타결 목표
▪ 호주	2005년 5월 협상 개시 후 2006년 타결 목표

* GCC(걸프6개국):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마.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한국과 2005년 8월 4일 FTA 공식 서명을 마쳤고 2006년 3월초 발효를 앞두고 있음
- 2005년 협상을 개시한 쿠웨이트와 파키스탄은 2006년에도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 4월 타결된 파나마는 2006년 1월말 공식 서명을 할 예정임
 - Trans-Pacific SEP와 카타르는 2005년 6월 협상을 타결지었으며 Trans-Pacific SEP는 2006년 1월부터, 싱가포르-카타르 FTA는 2006년 중 발효할 것으로 예상됨

<싱가포르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6년 일정
▪ 한 국	3월초 발효 예정
▪ 쿠웨이트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6년 지속 예정
▪ 파키스탄	2005년 8월 협상 개시, 2006년 지속 예정
▪ 인 도	2005년 6월 서명, 2006년중 발효 예정
▪ Trans-Pacific SEP	2005년 6월 타결, 2006년 1월 발효 예정
▪ 파나마	2005년 4월 타결, 2006년 1월말 공식 서명 예정
▪ 카타르	2005년 6월 타결, 2006년중 발효 목표

*Trans-Pacific SEP: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 FTA

바. 태국

- 2006년 중반 페루와의 FTA가, 7월에는 BIMSTEC이, 9월에는 일본과의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 태국-페루 FTA는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 서명
 - 태국-일본 FTA는 2004년 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005년 9월 양국 정상에 의해 협상 타결이 선언되었음
- BIMSTEC는 2006년 7월 1일부터 관세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협정이 발효되며 부탄, 미얀마, 네팔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무역자유화가 2012년 6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태국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6년 일정
▪ 일 본	4월 공식 서명, 9월 협정 발효 예정
▪ 미 국	2004년 6월부터 협상 진행
▪ 페 루	2005년 11월 타결, 2006년 중반 발효 예정
▪ BIMSTEC	7월 발효 예정(2012년 6월까지 무역자유화 완성 목표)

사. 인도

- 인도는 2004년 1월, 남아시아 7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부탄) FTA 기본협정에 서명
 - 2006년 1월 1일부터 최대 2015년 12월말까지 역내 관세를 0~5%로 인하할 것임. 인도와 파키스탄은 향후 7년간에 걸쳐 관세를 0~5%로 인하하고, 스리랑카는 8년, 그 외에 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 부탄 등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나라들은 10년내 관세를 0~5%로 인하할 예정
- 인도-ASEAN 상품무역협정은 2006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105개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부터 선자유화(EHP)를 실시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2003년 10월, 인도는 ASEAN과 2011년까지(후발 4개국은 2016년)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합의한 바 있음

<인도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6년 일정
▪ 한 국	2월중 협상 개시
▪ SAFTA	2006년 1월 발효 예정
▪ ASEAN	2006년부터 발효 예정
▪ BIMST-EC	7월 발효 예정(2012년 6월까지 무역자유화 완성 목표)
▪ 싱가포르	2006년 중 발효 예상
▪ Mercosur	2006년 중 발효 예상
▪ 칠 레	2006년 중 발효 예상

- * SAFTA(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 * BIMST-EC 회원국: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스리랑카, 네팔
- * 인도-ASEAN FTA는 2005년 11월부터 105개의 특정 품목의 관세 인하를 단행하는 선자유화(EHP)를 이미 실시함

아. 말레이시아

-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는 114개의 파키스탄산 품목에 대해, 파키스탄은 125개의 말레이시아산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단행하는 선자유화가 실시됨
 - 2007년 3월 31일까지 무역자유화 완성을 목표로 함
- 말레이시아는 2005년 12월 일본과 FTA에 공식 서명했으며 2006년내 발효를 예상하고 있음
- 호주 및 뉴질랜드와는 2005년 5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200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말레이시아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6년 일정
▪ 일 본 ▪ 파키스탄 ▪ 호 주 ▪ 뉴질랜드	연내 발효 예정 1월 선자유화 실시 2005년 5월부터 협상 진행 2005년 5월부터 협상 진행, 2007년 발효 목표

자. 멕시코

- 멕시코는 신규 FTA 체결 일시 중단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2006년 초 개시가 예상되는 한국-멕시코 SECA(전략적경제보완협정)을 제외하고는 FTA 추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멕시코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6년 일정
▪ 한국	연초 협상 개시, 연내 타결 목표

차. 칠레

- Trans-Pacific SEP가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중국 및 인도와의 FTA가 연내 발효를 앞두고 있음
- 2005년 1월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한 일본과는 연내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협상을 개시할 예정임

<칠레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6년 일정
▪ Trans-Pacific SEP ▪ 일 본 ▪ 페 루 ▪ 파나마 ▪ 중 국 ▪ 인 도	1월부터 발효 연내 협상 개시 2005년 8월부터 협상 진행 2005년 6월부터 협상 재개 연내 발효 예정 연내 발효 예정

*Trans-Pacific SEP: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 FTA

카. EFTA

- 2005년 12월 공식서명 절차까지 마무리한 한국과는 7월 1일부터 협정 발효될 예정임
- EFTA 회원국 중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2005년 6월 튀니지와의 FTA 협정을 이미 발효시켰으나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의 경우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함

<EFTA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6년 일정
▪ 한 국 ▪ 튀니지 ▪ SACU ▪ 태 국	7월부터 발효 노르웨이, 아이슬랜드의 국내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협정 발효 연내 발효 예정 2005년 5월부터 예비협 의 진행

타. 호주

- 2005년 5월부터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과는 조속한 타결이 예상되어 연내 타결이 기대됨
- 호주-말레이시아 FTA, 호주-뉴질랜드-ASEAN CER 협상은 2005년 중 개시되어 진행하고 있음

<호주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6년 일정
▪ 말레이시아 ▪ 중 국 ▪ 뉴질랜드-ASEAN CER	2005년 5월부터 협상 진행 연내 타결 목표 2005년 2월 협상을 개시, 2007년 2월 협상 타결 목표로 진행

파. 뉴질랜드

- 말레이시아와는 2005년 5월 협상을 개시했으며 2007년 협정 발효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시킬 것으로 전망됨
- 뉴질랜드-호주-ASEAN CER 협상은 2005년 2월 개시되었으며 2년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뉴질랜드의 2006년 FTA 협상 일정>

협상국	2006년 일정
▪ 말레이시아 ▪ 중 국 ▪ 호 주-ASEAN CER	2005년 5월 협상 개시, 2007년 발효 목표 2004년 12월부터 협상 진행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7년 2월 협상 타결 목표로 진행

<2006년도 주요국별 FTA 추진 일정>

국가	국가	일정
한국	▪ 한국-싱가폴 ▪ 한국-ASEAN ▪ 한국-EFTA ▪ 한국-캐나다 ▪ 한국-멕시코 ▪ 한국-인도 ▪ 한국-MERCOSUR ▪ 한국-중국	3월초 발효 예상 4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7월 상품무역협정 발효, 연내 타결 목표 7월 협정 발효 예상 2월 4차 협상을 시작으로 연내 타결 목표 연초 SECA 협상 개시, 연내 타결 목표 2월중 CEPA 협상 개시 예정 5월 공동연구 종료 예정 연말까지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진행 예정
미국	▪ CAFTA-DR ▪ 미국-바레인 ▪ 미국-오만 ▪ 미국-아랍에미리트	연초 발효 예상 연중 발효 예상 연중 공식 서명, 발효 예상 연중 협상 타결 목표
일본	▪ 일본-말레이시아 ▪ 일본-필리핀 ▪ 일본-태국 ▪ 일본-베트남 ▪ 일본-인도네시아 ▪ 일본-호주 ▪ 일본-캐나다 ▪ 일본-칠레 ▪ 일본-스위스 ▪ 일본-인도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중 발효 예정 연초 서명, 연내 발효 예정 4월 서명, 9월 발효 예정 1월 공동연구 개시 예정 2005년 7월 협상 개시 후 2006년 진행 예정 연중 공동연구 개시 예정 연중 공동연구 종료 예정(2005년 12월 개시) 연중 협상 개시 예정 2005년 11월 공동연구 개시 후 2006년에도 계속 진행 예정 6월 공동연구 결과 제출 예정
중국	▪ 중국-파키스탄 ▪ 중국-뉴질랜드 ▪ 중국-칠레 ▪ 중국-GCC ▪ 중국-호주	1월부터 선자유화(EHP) 실시 2004년 12월부터 협상 진행 후 2006년 협상 지속될 예정 연중 발효 예정 연중 협상 타결 목표 연중 타결 목표
태국	▪ 태국-일본 ▪ 태국-미국 ▪ 태국-페루 ▪ BIMSTEC	4월 공식 서명, 9월 협정 발효 예정 2004년 6월부터 협상 진행 2005년 11월 타결, 2006년 중반 발효 예정 7월 발효 예정(2012년 6월까지 무역자유화 완성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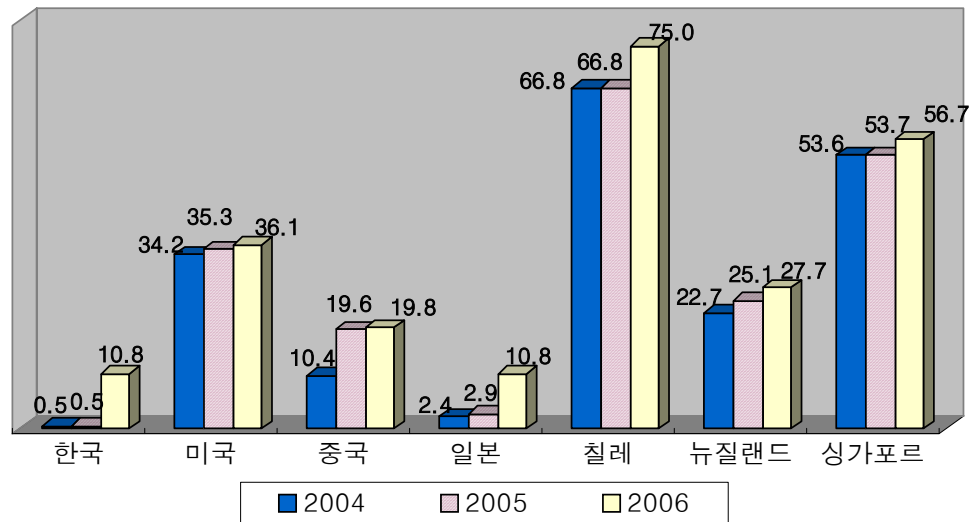
싱가폴	▪ 싱가포르-한국 ▪ 싱가포르-쿠웨이트 ▪ 싱가포르-파키스탄 ▪ 싱가포르-인도 ▪ Trans-Pacific SEP ▪ 싱가포르-파나마 ▪ 싱가포르-카타르	3월초 발효 예정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6년 지속 예정 2005년 8월 협상 개시, 2006년 지속 예정 2005년 6월 서명, 2006년중 발효 예정 2005년 6월 타결, 2006년 1월 발효 예정 2005년 4월 타결, 2006년 1월말 공식 서명 예정 2005년 6월 타결, 2006년중 발효 목표
칠 레	▪ Trans-Pacific SEP ▪ 칠레-일본 ▪ 칠레-페루 ▪ 칠레-파나마 ▪ 칠레-중국 ▪ 칠레-인도	1월부터 발효 연내 협상 개시 2005년 8월부터 협상 진행 2005년 6월부터 협상 재개 연내 발효 예정 연내 발효 예정
EFTA	▪ EFTA-한국 ▪ EFTA-튀니지 ▪ EFTA-SACU	7월부터 발효 노르웨이, 아이슬랜드의 국내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협정 발효 연내 발효 예정
호 주	▪ 호주-말레이시아 ▪ 호주-중국 ▪ 뉴질랜드-ASEAN CER	2005년 5월부터 협상 진행 연내 타결 목표 2005년 2월 협상을 개시, 2007년 2월 협상 타결 목표로 진행
뉴질랜드	▪ 뉴질랜드-말레이시아 ▪ 뉴질랜드-중국 ▪ 호주-ASEAN CER	2005년 5월 협상 개시, 2007년 발효 목표 2004년 12월부터 협상 진행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7년 2월 협상 타결 목표로 진행

3.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 변화

- 주요국의 2004년과 2005년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대부분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6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한국의 경우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로 교역비중이 0.5%로 증가했으며 2006년 발효될 싱가포르, EFTA, ASEAN을 고려하면 교역비중은 10.8%로 무려 10.3%포인트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은 2006년 발효될 중미 5개국 및 도미니크 공화국과의 FTA, 바레인, 오만 등을 고려할때, 교역 비중은 2005년 35.3%에서 2006년 36.1%로 증가할 전망
- 일본의 경우 2005년 멕시코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교역 비중이 0.5%포인트 증가했으나 2006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과의 FTA가 발효 예정되어 있어 수출 및 교역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비중은 2005년 3.8%에서 2006년 11.6%로, 교역 비중은 2.9%에서 10.8%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은 2005년 7월부터 ASEAN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04년의 10.4%에서 2005년 19.6%로 교역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
 - 2006년 중 파키스탄, 칠레와의 FTA 발효가 예정되어 있어 교역 비중은 19.6%에서 19.8%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칠레는 2006년 Trans-Pacific SEP 및 중국, 인도 등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으로 교역 비중은 66.8%에서 75.0%로 8.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싱가포르의 경우 2005년 중 파나마, 카타르, Trans-Pacific SEP등과 협상을 타결시켰으며 2006년 동 협정의 발효가 예정되어 있어 2006년 수출과 교역 비중이 모두 3%포인트씩 증가한 55.6%와 56.7%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됨

<주요국의 FTA 체결국에 대한 교역 비중 변화(%)>

	2003년 12월 5)		2004년 12월 6)				2005년 12월 7)				2006년 12월 8)(예상)			
	수출 (%)	교역 (%)	수출 (%)	증감	교역 (%)	증감	수출 (%)	증감	교역 (%)	증감	수출 (%)	증감	교역 (%)	증감
한 국	0.0	0.0	0.3	+ 0.3	0.5	+ 0.5	0.3	-	0.5	-	10.1	+ 9.8	10.8	+ 10.3
미 국	38.3	33.2	40.6	+ 2.3	34.2	+ 1.0	42.5	+ 1.9	35.3	+ 1.1	44.4	+ 1.9	36.1	+ 0.8
중 국	17.7	10.4	17.7	-	10.4	-	24.8	+ 7.1	19.6	+ 9.2	25.2	+ 0.4	19.8	+ 0.2
일 본	3.1	2.4	3.1	-	2.4	-	3.8	+ 0.7	2.9	+ 0.5	11.6	+ 7.8	10.8	+ 7.9
칠 레	61.2	56.8	62.1	+ 0.9	66.8	+ 10.0	62.1	-	66.8	-	70.9	+ 8.8	75.0	+ 8.2
뉴질랜드	21.6	22.7	21.6	-	22.7	-	24.1	+ 2.5	25.1	+ 2.4	23.6	- 0.5	27.7	+ 2.6
싱가포르	41.1	43.9	52.5	+ 12.2	53.6	+12.2	52.6	+ 0.1	53.7	+ 0.1	55.6	+ 3.0	56.7	+ 3.0



5) '03년 12월 발효중인 국가와 '02년 수출입실적(IMF) 기준

6) '04년 12월 발효중인 국가와 '03년 수출입실적(IMF) 기준

7) '05년 12월 발효중인 국가와 '03년 수출입실적(IMF) 기준

8) '06년 12월 발효 예정인 국가와 '04년 수출입실적(IMF) 기준